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2023년 금주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 엄명섭 기자 | ☎ 승인 2023.06.05 14:42

| 재난대응위기 상황대처를 위한 선제적 훈련실시

재난대응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선제적 훈련 실시



훈련상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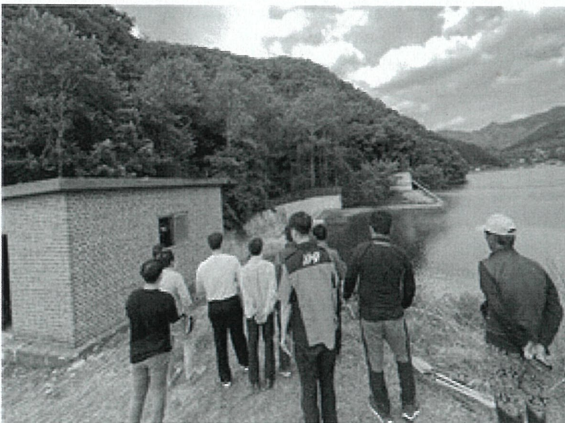
훈련상황 지휘소



훈련상황 대피요령



훈련상황 대피요령 숙지



훈련상황 대피요령 설명



훈련상황 복구요령 숙지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가 “2023년 금주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지사장 최재철)는 지난달 25일 포천시 영중면 금주저수지에서 “2023년 금주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주저수지는 영중면 일원 75.4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총저수량 65.6만톤의 농업용 저수지로 자연재해로 인한 저수지 제당 붕괴시 저수지 하부일원 주민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포천시(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영중면) 및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인근 지역주민도 참석하였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당붕괴 상황을 가정하여 제당 비상복구 및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여 실제상황 발생시 직원들의 비상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재철 연천포천가평지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이 모두 힘을 합쳐 재해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훈련참가자에게 당부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